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와 낭만성*

김 미 영*

차례

1. 머리말
2. 교양소설로서의 『젊은날의 초상』
3. 교양주체의 형성과 낭만적 특성
 - 1) 독서에 의한 ‘교양인’ 만들기
 - 2) 낭만주의적 교양주체의 양상
4. 맺음말: 60년대 교양주체의 의미

<국문초록>

이 글은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다시 읽기를 시도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난 교양주체와 낭만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두 가지에 집중하였다. 하나는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와 주인공 청년의 교양은 어떤 의미를 띠는지 살펴본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의 특성이 낭만적이라는 것, 그러한 낭만적 교양주체는 1960년대 독서대중화 운동과 상당히 밀착되었다는 점이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것임. (HY-2013년도)

** 한양대 교수

이 글의 전개에는 독일 교양소설의 개념에 영향을 끼친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의 견해가 도움을 주었다.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의 특성 규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성장소설’이라는 일반화된 장르명과 차별하여 ‘교양소설’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데에는 주인공 이영훈의 ‘젊음’과 젊음에 수반되는 열정과 고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딜타이와 모레티에 의하면, 교양소설은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젊음을 표현하는 소설장르이다. 이 장르의 소설은 부르주아와 귀족이라는 두 계급 사이의 전환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더니티의 등장 시기에 활동하는 ‘젊은 청년’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변형, 이동성과 불확실성,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젊은날의 초상』의 주인공 ‘이영훈’은 서구유럽의 교양소설의 주체와 유사하다. 장년의 주인공이 회상하는 젊은 주인공 영훈은 개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강렬하며, 지적·문학적 탐색과 방황, 예술 세계에 대한 강렬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즉 60년대 청년이 교양인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그에게 나타난 지식인·교양인의 형상화가 1960년대의 독서 운동과 밀착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는 교육정책적으로 교양인 육성에 관심을 두었던 시기이다.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독서’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자유교양운동’이라는 교육정책은 교양주의·인문주의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추진하는 양상이 ‘국가(주의)’와 대중이 결부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러한 독서운동은 60년대 중·후반에 중등 교육을 받은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은 이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책’에 대한 관심, 숭배, 지적 토론 등을 통해 드러난다. 또 하나 주시해야 할 것은 사회적 현상의 영향에서 형성된 60년대 교양주체인 이영훈에게 낭만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다. 그에게 나타난 낭만적 성향은 절대미 숭상, 절망의식의 현현, 그리고 젊음에 대한 동경 등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개인의 자아 완성을 보여주는 성장서사의 교양주체가 자기 결정과 사회적 통합의 조화를 교양 이념으로 삼고 있으면서 현실비판보다는 미래를 낙

관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 핵심어 : 『젊은 날의 초상』, 교양소설, 교양주체, 낭만성, 독서, 젊음, 절대미, 절망, 동경.

1. 머리말

이문열은 1979년 「새하곡」으로 등단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단의 주목받는 소설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비평가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층도 상당히 폭넓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 중의 하나는 그의 소설구성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능란한 이야기꾼의 솜씨’¹⁾를 지녔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여기에 해박한 동서양의 고문을 자양분 삼은 인문학적 소양의 겸비는 대중들의 교양 욕구를 채워 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분량으로 축적되었고,²⁾

- 1) 유중호, 「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 김윤식 외, 『이문열론』, 1991, 75면.
- 2) ‘이문열’이라는 제목만으로 출간된 단행본이 4권(김윤식 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류철균, 『이문열』, 살림, 1993; 이태동,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옥동, 『이문열, 민음사, 1994』.)이나 되는 것에 비해, 그리고 그의 창작 경력이 30 여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위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학위논문은 대략 60여권인데, 이중에 박사논문이 10편이다. 10편 이면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10편 중에서 순수하게 이문열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것은 2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장소설이나 기독교 소설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황석영과의 비교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학위논문의 성과가 이런 점은 생존 작가라는 점도 작용할 것이고, 그의 문학세계의 특성과도 맞물릴 것으로 본다. 그의 문학세계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의 엄청난 독서에서 비롯된 지적 사유체계의 깊이 때문에 가까이 하기 어렵다. 또한 문학성 못지 않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수주의적 경향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작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경향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 중에서 ‘교양주의’와 ‘낭만주의’는 이 글의 출발에 많은 암시를 주었다. 이 글은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다시 읽기를 시도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난 교양주체와 낭만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글은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하나는 『젊은날의 초상』을 왜 ‘교양소설’로 다루려 하는지 밝히는 것이고 아울러 주인공 청년의 교양은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함께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밝혀진 교양소설의 성격과 교양주체가 드러내는 낭만적 특성은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젊은날의 초상』을 단독으로 분석한 작품론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발표 초기의 글로는 성민엽, 권영민, 이태동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90년대에는 김옥동 등의 평론, 그리고 2000년대에는 안남연, 강유정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권영민은 성장소설로, 성민엽은 기술방식 면에서 분석하였다. 김옥동은 이 작품을 젊음의 문학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서 그 이유를 ‘작가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인간 실존과 관련된 형이상학적인 문제’³⁾를 다루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이 작품을 교양소설로 꼼꼼히 읽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려는 이 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강유정의 논문은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를 살핀 글이다. 많은 논자들이 성장담론으로 일률적으로 본 것과 달리 그러한 성장 주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밝혀 보려 한 점에서 신선한 연구였다. 그러나 「하구」를 분석함에 있어 주인공의 사유공간이자 행동 반경이 되는 ‘강진’을 고향으로 설정한 것은 전체 작품 이해에 큰 흠결⁴⁾을 남겼다고 본다. 강진은

3) 김옥동, 『이문열』, 민음사, 1994, 156면.

4) 강유정,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진리의 탐색과 알레고리」, 『배달말』 49, 2012. 「하구」의 주요 공간인 ‘강진’은 영혼과 그의 형이 잠시 머물던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낯선 인물들이 자신을 포함하여 바다로 나가기 직전까지 퇴적층을 이루고 있는 ‘하구’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명까지 ‘하구’라고 하였는데, 이를 오독하여 ‘고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논문 전체의 논리적 전개에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의 ‘故郷’(영양군 석보면이라는 지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은 곧 ‘門中’

이곳을 처음 방문한 낯선 이방인인 주인공에게 유적(流謫)의 파토스를 느끼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장소설’은 이 용어의 모태 지역 독일에서는 ‘교양소설’로 명명된다. 사실, 성장소설과 교양소설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소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만큼 소설연구에서 ‘성장소설’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작품에 나타난 ‘젊음’의 의미 때문이다. 젊음, 청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고뇌가 당시 60년대 교양인의 모습이라는 점은 충분히 조명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즉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열정과 고뇌가 잘 드러나 있기에 교양소설에서 중시하는 시민사회와의 조화와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60년대 젊음’의 새로운 단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선상에서 본고는 60년대 교양주체의 특성이 낭만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교양주체의 형성과정과 낭만적 경향의 교양소설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문열 소설세계의 특성 중 하나인 ‘낭만성’을 구체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2. 교양소설로서의 『젊은날의 초상』

『젊은날의 초상』에 대한 대부분의 평론과 논문을 보면, 교양소설(성장소설)이라는 장르적 분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또한, 이문열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교양주의’라는 지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교양이 무엇인지, 왜 교양소설인지 그 구체적 특성을 밝히고 있는 글은 드물다. 즉 『젊은날의 초상』이 교양소설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특징이 무엇인지, 더구나 교양소설을 1960년대 사회의 교양과의 관계에서 밝힌 글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 이음동의어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교양소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조영일의 「한국근대교양소설 연구」, 2005년 허병식의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2014년 복도훈의 「1960년 한국 교양소설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⁵⁾ 이러한 연구에 작은 길을 틔워 준 것은 2000년 윤지관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빌둥의 상상력: 한국 교양소설의 계보」⁶⁾에서 “교양소설의 진정한 서사는 유소년기의 형성이 물론 질료가 되겠으며, 바로 그 같은 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소년의 주인공에서 청년으로 변화된 주인공을 강조한 것은 이 작품을 논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어서 그는 “학계나 평단에서 혼용하여 쓰고 있는 성장소설과 교양소설이라는 용어를 경우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할”(437면)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 교양소설이 각 근대의 단계마다 도달한 곤경과 그 표현의 한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는 주장은 교양소설의 등장이 당대 사회의 특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교양소설의 출발과 융성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교양소설의 전형으로 익숙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시민적 교양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델타이와 모레티에 의하면, 교양소설은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젊음을 표현하는 소설장르이다. 교양소설에 대한 델타이의 정의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교양소설의 주인공을 특별히 ‘젊은이’로 규정하는 대목이다.

『빌헬름 마이스터』로부터 시작된 교양소설들은 지난날의 젊은이를 묘사한다. 즉 어떻게 그 젊은이가 행복한 여명기에서 인생에 받을 디터 자기와 비슷한 영혼을 찾아 우정과 사랑을 맺게 되는지를, 그러나 다른

- 5) 조영일, 「한국근대교양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복도훈,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6) 윤지관, 「빌둥의 상상력: 한국 교양소설의 계보」,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에서 이광수의 『무정』, 최인훈의 『광장』,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 신경숙의 『외딴 방』, 배수아의 『랩소디 인 블루』를 ‘교양소설’로 다루고 있다.

한편 그가 어떻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투쟁하면서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숙해 나가며 자신을 발견하여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확신해 가는가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양소설은 개인생활의 관심영역으로 제한된 한 문화의 개인주의를 표현한다.⁷⁾

이 장르의 소설은 부르주아와 귀족이라는 두 계급 사이의 전환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더니티의 등장 시기에 활동하는 ‘젊은 청년’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변형, 이동성과 불확실성,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등으로 특징지어진 인물이다. 빌헬름 딜타이가 초반에, 그리고 프랑코 모레티는 1987년에 교양소설의 개념 정립에서 주인공의 ‘젊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프랑코 모레티는 『세상의 이치』에서 교양소설은 부르주아와 귀족이라는 두 계급 사이의 전환점에 자리잡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이 장르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교양소설의 주인공인 청년은 서유럽 중산계급의 남성으로서 이들은 폭넓은 문화적 형성, 직업적인 이동성, 완전한 사회적 자유를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독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⁸⁾

프랑코 모레티에 의하면 교양소설은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젊음을 표현하는 소설장르이다.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변형, 이동성과 불확실성,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모더니티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미결정적인 상태로 자기 형성의 도정에 있는 젊음을 인생의 문제적인 단계로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교양소설은 젊음이 모더니티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서사적으로 의미있게 취급하는 근대유럽의 독특한 소설장르⁹⁾인 것이다.

이때 ‘교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시민계급의 교양이념은 부르주아적 세계의 모순을 수정하려는 이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그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이상 실현이

7) 후베르트 오를로프스키, 이덕형 옮김, 『독일 교양소설과 허위의식』, 형설출판사, 1996, 213면에서 재인용.

8)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12-13면.

9) 프랑코 모레티, 위의 책.

어렵게 될 때 교양소설의 청년주인공은 예술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교양소설과 예술가 소설은 때때로 겹쳐서 나타난다.

우리 문학계에서 교양소설에 대한 비평의 인식은 1981년 김윤식과 김병익의 글을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교양’이나 ‘교양소설’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이 용어의 의미는 식민 이후의 글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김윤식은 루카치의 소설론을 논하는 글에서 교양소설의 개념을 선보인다. “시민 사회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며, 시민 사회의 자아와 세계의 조화, 긍정적 발전을 기본”¹⁰⁾으로 하는 교양소설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양의 목표를 독일인들의 특성에서 찾았다. 독일인들이 인간의 자기형성에 대한 독특한 기대나 해석은 유별난 것이라 할 만한데 이러한 현상은 즉 인간을 도덕화하는 일은 독일 관념철학의 기본 이념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교육과 교양의 최고 목표는 인간을 도덕화함에 있는 것이다. 인격 도야가 일변 자기 내면화(고독)이고 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것이 자유로운 인간일 적에 이를 교양이라 할 것이다.¹¹⁾

한편, 김병익은 교양소설이라는 용어 대신 ‘성장소설’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성장소설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는 성장소설이 가능한 조건으로 개인의 자아가 성립되고 허용되는 문화체계의 존재, 두 자아 간의 갈등이 내성적인 각성으로 지양될 것, 그 사회의 문화가 보편적인 이념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¹²⁾ 등을 들면서 우리의 문화적 위상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활발해진 우리의 성장소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성찰을 제기하고 그 위상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소설

10) 김윤식, 「교양소설의 본질」,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276-290면.

11) 김윤식, 앞의 책, 277면.

12) 김병익, 「成長小說의 文化的 意味」, 『세계의 문학』, 1981, 여름호, 76면.

김병익은 김주영의 『아들의 겨울』, 최인호의 『내 마음의 풍차』, 이성우의 『떠다니는 뿌리』 등을 성장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후 90년대에 발표된 학위논문이나 평론들은 대체로 ‘성장소설’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교양소설이라는 명명의 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서 밝혔듯이, 윤지관은 두 용어의 사용을 구별하자고 주장하였고, 나병철¹³⁾ 또한 성장소설, 입사소설, 교양소설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은 어떤 면에서 서구의 교양소설과 연계되며,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독일 교양소설의 개념에 영향을 끼친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의 견해는 이 글의 방법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의 특성 규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성장소설’이라는 일반화된 장르명과 차별하여 ‘교양소설’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데에는 주인공 이영훈의 ‘젊음’과 젊음에 수반되는 열정과 고뇌가 큰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영훈’은 개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강렬하다. 제도권 교육으로의 진입을 위한 입시 준비, 대학 생활에서의 지적·문학적 탐색과 방황, 예술 세계에 대한 강렬한 추구는 유럽 교양인과 유사한 면을 지닌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일상적 괴로는 60년대 대학생, 즉 지식인·교양인의 형상화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

서구의 교양소설이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인간적 성숙의 조화로운 완성 단계를 ‘소설가(예술가)’가 되기까지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줄 때, 이 작품 또한 여행 플롯담 안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양소설 장르가 갖추고 있는 선형적 구조, 발전적 시간의 과정을 전유한 것이다. 교양소설이 당대 사회, 문화적 조건하에 인간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타나게 된 장르라는 점에서 ‘이영훈’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 주체의 재현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한다.

교양소설의 교양(Bildung)이라는 개념에는 젊음의 창조적 자기형성에

내포된 다양한 특질들, 곧 개인성과 내면성의 형성,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험과 자기 탐구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자아의 발전에 대한 욕구와 좌절, 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개별적으로는 자율을 보장받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그 자율을 인준하고 승인하고 보장하는 우애와 사랑의 결사에 대한 실험 등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근대에 이르러 젊음은 점점 자신만의 완결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교양은 이러한 완결태를 위해 자신을 계발하고 숙고하는 삶의 형성 과정을 일컫는다.¹⁴⁾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인공 이영훈 개인의 성장 서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젊음’의 발현 양상이 유소년의 이니시에이션적 각성과는 차이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성장서사가 1960년대의 사회사적 맥락과 긴밀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영훈으로 그려진 교양주체의 모습은 당시의 ‘교양인 만들기’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훈은 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교양 주체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하겠다.

3. 교양주체의 형성과 낭만적 특성

1) 독서에 의한 ‘교양인 만들기’

『젊은날의 초상』은 처음부터 단일한 장편소설은 아니다. 주인공의 시공간적 여정에 따라 「하구」, 「우리 기쁜 젊은날」, 「그해 겨울」의 연작형식 작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처음 발표된 것은 「그해 겨울」(1979, 문학사상 85)이다. 「하구」는 1981년 5월(한국문학 91), 「우리 기쁜 젊은날」은 같은 해 6월(세계의 문학 20)에 발표되었다.

13)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291면.

14) 복도훈, 앞의 논문, 2면.

작품의 발표 연대에 의존할 경우, 주인공을 70년대 청년으로 설정하여야 맞다. 그러나 『젊은날의 초상』의 주인공 이영훈은 6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68년에 대학에 진학한 후, 69년에 대학을 중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의 연보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 후기에서 ‘이 책처럼 내 삶과 밀착된 것도 드물다. 비록 텅빈 감상과 애정 때문에 극적인 과장과 미화의 폐해를 입고 있긴 해도 이 갈피갈피에는 무슨 열병처럼 지나온 내 젊은 날들이 영원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숨쉬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79년, 81년에 발간되었지만, 주인공의 활동 시기를 고려한다면 60년대의 대중적인 독서 운동의 영향을 받은 청년이라 할 수 있다.¹⁵⁾

1960년대는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대중적 매체에 독서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됨으로써 독서 현상이나 독서 교육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와 관련된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¹⁶⁾

이영훈이 교양인으로 형성되는 과정에는 이와 같은 ‘독서 운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러한 점은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책’에 대한 관심이나 숭배의 태도, 지적 토론, 문학회 토론 등에서 드러난다. 「하구」, 「우리 기쁜 젊은날」, 「그해 겨울」의 3부작으로 이루어진 장편에서 작품 주인공 이영훈은 고등학교 중퇴생의 방황기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생활에서 얻은

15) 안남연의 「현대소설에 나타난 ‘젊음’의 발현 양상」(『한국문예비평연구』 제29집, 2009, 198면)에서는 ‘70년대 젊음의 치열한 방황’이라는 표제하에 이 작품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소설은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하에 이문열의 학업 과정과 방황 등을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전적 요소를 인용한다면 오히려 60년대의 ‘젊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이들이 젊음을 보냈을 60년대는 이제 막 한국 경제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가난의 전성시대’(200면)라는 구절이 있다.

16)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8권, 2007, 292면.

극도의 피로와 절망감으로 대학중퇴를 결심하고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주인공 이영훈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성장담이다. 그의 지적 성장, 즉 교양인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설가가 되는 과정에는 ‘독서’의 영향이 매우 강력하다.

조속한 독서 편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독서 범주는 동서양의 고전과 철학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독서운동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이 당시 중·고등학교에서는 독서를 강화하고, 고전읽기를 추진하면서 필독서를 미리 지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5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독서운동은 윤금선과 천정환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전국적 규모로 벌어진 자유교양운동은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갈래의 독서 국민운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문교부나 공립 도서관이 벌인 독서운동 외에도 ‘국민독서연맹’, ‘한국독서인구개발공사’, ‘독서장려협회’, ‘자유교양협회’ 등이 관련 또는 민간에 조직되어 마을문고·직장문고 운동, ‘국민독서경진대회’ 등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들 운동의 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았다. 우선 ‘의식’ 면에서 ‘(근대)국민-만들기’ 내지는 ‘민족중흥’이라는 박정희식 인민주의 레짐이 그 독서운동에 작용한 공통된 의식이자 기반이었다. 민족주의적-근대화 동원에 독서의 중요성을 연관시킨 것은 그 시대의 독특하고도 지배적인 생각이었다.¹⁷⁾

고등학교 중퇴자인 영훈의 성장에 아버지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드러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유일한 혈육인 형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사유세계와 진로에 대한 결정은 형의 조언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년여의 시간을 방황으로 보낸 영훈이 스스로 검정고시와 대입을 준비하게 된 것은 ‘책’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제도권의 교육에서 일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영훈의 내면 세계를

17)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2, 285면.

지배한 것은 ‘책’이었다. 영훈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 즉 자기완성태의 과정을 사회와의 조화에서 이루는 것은 책을 통한 사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장서와 잘 갖추어진 스테레오 시설은 그들의 상당한 교육수준과 함께 정서적인 윤택을 드러내는 것들이었다.¹⁸⁾

하가(河哥)는 거의 한 해 동안이나 열심히 드나들던 학교도서관에서 만난 동급생이었다. 그 역시 굉장한 독서가여서 자주 만나다 보니 얼굴이 익게 된 것인데, 처음 한동안 우리들의 관계는 매우 의례적이었다.(중략) 우리들은 경쟁하듯 책을 읽어대고는 있었지만 그 대상이나 목적은 서로 묻지 않았고, 학교 밖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 내밀한 것에 관해서는 짐짓 무관심한 척하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우리 기쁜 젊은날」, 67면)

그래, 그때 나는 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탐구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가슴에 불타고 있던 것이 진정한 이데아의 광휘였을까. 아니었다. 세 번 아니었다. 소년의 허영심으로, 목로주점의 탁자를 위하여, 어쭙잡은 숙녀와 마주 앉은 다방의 찻잔을 위하여 읽었을 뿐이었다.(「그해 겨울」, 170면)

위의 인용문은 「하구」, 「우리 기쁜 젊은날」, 「그해 겨울」을 독립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주인공 이영훈의 교양이 독서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적(流謫)의 땅 강진에서 이영훈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별장집 황씨 남매는 장서를 소유한 젊은이들이다. 황씨가 이영훈을 친구로 받아들인 것도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지적 교류가 크게 작용한다. 이영훈은 처음 별장집에 갔을 때 위축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장서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가구였다.

「우리 기쁜 젊은날」에서는 책과 지적 사유, 토론 등이 훨씬 다채롭게 등장한다. 작품의 주요배경이 대학생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동료들과 벌이는 대화에서 이런 점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다. 이영훈이 대학교에서 만난 중요한 친구는 하가와 김형이다. 인용문은 처음 하가와 친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우정은 둘의 공통점인 ‘독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인문학적 교양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교양 축적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다. 『젊은날의 초상』 중에서도 2부인 「우리 기쁜 젊은날」에는 60년대 대학생의 교양인으로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영훈의 친구들인 하가와 김형을 통해 당시 대학생들의 지성 추구, 교양주체의 형성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 언급된 책이나 저자만 보더라도 시경, 일리아드, 스콜라철학자 윌리엄 오컴, 니이체, 체홉, 시인 비용, 어린왕자, 하이데거와 옥스퍼드 일상언어학과, 소쉬르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아담 스미드의 경제이론을 비롯하여 미국의 사회학자 리그즈의 사회발전 모형 이론과 현대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구분한 라스웰의 정치 이론은 논쟁의 성격을 띤 채 대화 주제로 등장한다.

「그해 겨울」에서는 주인공 이영훈이 무려 천 여권의 책을 독파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처럼 이영훈을 비롯한 친구들의 교양과 지식은 독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제도교육권에서 권장한 독서운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기쁜 젊은날」에서 이영훈의 고백을 보면 이런 유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그 곳에서 무슨 천부의 권리처럼, 혹은 자명한 진리처럼 떠들었던 것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오랜 국민형성교육(國民形成教育)의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초등학교의 <사회 생활>과 중등학교의 <공민(公民)> 및 <일반사회>에서 주입된 지식과 몇권의 번역서에서 얻은 지식의 단편이 집적된 것일뿐, (중략) (「우리 기쁜 젊은날」, 74면)

60년대 후반, 자유교양협회의 고전 읽기 운동은 문제적이다. 단지 그 ‘자유교양’과 고전이 반공독재나 개발주의와 거리가 먼 인문학적 이상주의를 내포한 것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참가 인원의 규모나 내용, 그리고 거기 개재된 인식 등 제 측면에서 자유교양운동은 단순한 관변 독서

18)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1989, 32면. 이후의 인용문은 소제목과 면수를 표기한다.

단체의 운동이 아니었다. 자유교양운동은 당시 한국의 ‘지적 격차의 문화’ 상황과 함께 교양주의·인문주의의 성격, 그리고 그것에 ‘국가(주의)’와 대중이 결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¹⁹⁾ 교양의 핵심을 고전 독서로 설정하는 교양주의는 한국에서는 1950년 이후에 본격화된 것이다.

영혼을 비롯한 이들의 교양 쌓기는 60대의 대운동인 독서운동과 밀착되어 있다. 발전적 시대 상황에서 독서에 의해 형성된 지식인, 교양주체의 청년들은 현실적인 삶과의 대결에서는 낙오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철저한 생활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교양인으로서 형성되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독서 열풍은 작중인물의 형상화에 스며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는 상당부분 이문열의 문학인생과도 유사하다. 그의 산문 「이우는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으며」에는 소년시절과 문학청년 시절의 독서 목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일부분만 살펴보겠다.

내가 읽은 최초의 소설책은 국민학교 이학년 때 읽은 『걸리버 여행기』 일 것이다. 학원사에서 낸 소년소녀 명작문고였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대략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 문고를 거지반 읽었다.²⁰⁾

우리 문중에는 집집마다 문중형제들이 보던 책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빌려다가 읽었다. 『내가 설 땅은 어디냐』, 『이 캄캄한 무덤에 나를 잠들게 하라』, 『현해탄은 알고 있다』, 『사랑과 영원의 대화』, 『만가』 따위 당시의 인기물도 있고, 『전쟁과 평화』, 『부활』, 『지킬박사와 하이드』, 『체홉 단편선』, 『적과 흑』 같은 것들도 있었으며, 달 지난 『사상계(思想界)』와 『학원(學園)』, 『여원(女苑)』도 좋은 읽을 거리였다. (「이우는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162면)

안동에서의 고등학교 시절 일 년도 가장 많은 시간은 읽기에 바쳐진 듯하다. 그때부터는 제법 책을 가려 읽게 되었는데 문학은 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이었다. (「이우는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162면)

19) 천정환, 앞의 논문, 286면.

20) 이문열, 「이우는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이남호 편, 『이문열』, 웅진출판, 1994, 161쪽. 이후의 인용문은 제목과 면수만 밝힌다.

회고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문열은 소년 및 청소년 시절에 ‘남독’이라 할 만큼 많은 독서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동의 문중 형들에게 많은 책들이 있었고,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잡지와 저널 등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남독시대’라고 말하는 부산으로의 이주시기에는 이웃에 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덕분에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다. 문중의 형들이나 이웃의 장서가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상이 당시의 독서 열풍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2) 낭만주의적 교양주체

이문열 소설에 내장된 낭만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평이 되다시피 했다. 이동하는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이며, 작가의 역사관·인생관·사회관 등등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해”²¹⁾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문열 소설에 시대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예정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무모한 열정의 소유자들이 풍만한 것도 낭만주의적 감수성에서 근원한다. 초기에 낭만성을 다룬 논자는 이동하, 이남호 등이 있으며 이후 안남연에 이어 김미옥의 학위논문으로 나타난다.

‘낭만적’이라는 문학 용어는 그 의미의 자장이 매우 폭넓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작품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살펴보겠다. 프루스트의 『낭만주의』에 실린 문학이론가나 문인들이 내린 낭만주의의 정의도 이문열의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에서 낭만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것이 그럴싸하다기보다 경이로울 때 그것을 대체로 낭만적으로 보았다. 또한 절멸해 버린 것에 대한 숭배,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노력, 감상적 우울

21)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이문열론』, 삼인행, 1991.

중, 막연한 동경, 이성 및 사실감과 대조되는 상상력, 이정보다는 정서요, 이지적인 것과 반대되는 감정적인 것, 아름다움에다 신기함을 추가한 것, 정신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등²²⁾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낭만주의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이사야 벌린의 『낭만주의의 뿌리』에서도 ‘낭만주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부터 시작한다. 주의할 대목은 “그들이(낭만주의자-인용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고결함과 성실함, 어떤 내적 열정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는 태도,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이상에 대한 헌신과 같은 것들이었다.”²³⁾라는 내용이다.

문예사조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낭만주의 또는 낭만성에 대한 견해가 독서로 무장되어 있는 60년대 젊은이와 어떤 영향관계인지,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무엇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보겠다.

① ‘절대미’ 숭상

교양소설과 예술가 소설은 겹쳐질 수 있다. 교양소설의 주인공인 청년이 부르주아적 세계의 모순을 수정하려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때, 그는 ‘예술 세계’로 경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주인공이 갖가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고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은 강하게 드러난다. 이때 예술가로 성장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 반응보다는 심미적 대상에 대한 관심을 표상한다는 의미를 띤다.

이문열의 예술가 소설에는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대체로 ‘장엄한 대상 이미지’²⁴⁾ 앞에 숭배의 태도를 보인다. 『시

인』, 「금지조」,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장엄한 대상은 대부분 숭고한 예술 정신을 보여주는 예술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젊은날의 초상』에서는 장엄한 대상의 이미지가 인물이 아닌, 절대적 미를 지니고 있는 자연에 의해서 구현되었다. ‘창수령’의 절대적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 희열을 느끼는 주인공 영훈의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창수령’은 죽음의 충동과 심한 절망감을 안고 있는 주인공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공간이다.

영훈은 대학 입학에 힘들게 이루어냈지만 대학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방향 하던 중, 경상도 산골에서 방우가 된다. 2개월 정도의 방우생활을 청산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초조감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방향을 허망하게 보낼 수 없다는 초조감과 그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방우 생활을 정리하고 바다로 향한다. 바다를 대하면 그 어떤 삶의 결단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여정 중에 창수령을 만났다. 창수령은 그에게 예술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아,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창수령을 넘는 동안의 세 시간을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세계의 어떤 지방 어느 봉우리에 서도 나는 지금의 감동을 다시 느끼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로 거기서 보았다. 오, 그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하던 그 모든 것들……고개를 다 내려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 뻔하였다. 환희, 이 환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미학자들이 무어라고 말하든 나는 그것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였다.(「그해 겨울」, 177면)

흰 눈에 덮인 창수령의 아름다운 광경은 그를 세속적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영훈은 창수령을 바라보며 절대미 앞에서 엄습하는 환희와 희열을 느끼고 예술이 지향하는 세계가 ‘절대미’와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자연에서 뿔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목격한

22) Lilian R. Furst, 이상옥 역, 앞의 책, 4-6면 참조함.

23) 이사야 벌린, 강유원·나현영 옮김, 『낭만주의의 뿌리』, 이재이북스, 2005, 20면.

24) 양선규, 「이문열 소설의 ‘시대착오성’ 문제」, 『개신어문연구』 제15집, 1998 708면.

그는 비로소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술’이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앞서 이사야 벌린이 말한 낭만주의자의 주요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삶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예술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헌신을 결심하는 것이다.

영혼은 대학 생활 동안 친구들과 함께 문학 서클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가난이라는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릴 때, 자신의 모든 외형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떤 예술적인 것-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된 삶을 갖게 되리라는 예감을 하였다. 그러한 예감을 신탁처럼 수용하면서 지난날의 방향에 중언을 고하는 장소가 창수령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절대미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낭만주의자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시인의 천재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자들은 유태주의적, 예술지상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창수령의 아름다움 앞에서 예술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한 영혼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 교양소설의 주인공들이 ‘길 위’의 탐색자로 설정되어 있듯이 이 작품에서 영혼은 길떠나기의 과정에서 드디어 그가 진실로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이다. 그에 있어 아름다움의 세계와 그 세계를 추구하는 예술은 인간의 모든 가치의 시작과 끝과 다름없다.

아름다움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며, 끝이었고, 모든 개념의 집체인 동시에 절대적 공허였다. 아름다워서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하여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선할 수 있고, 선해서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성스러울 수 있고 성스러워서 아름다울 수 있다……그러나 아름다움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치를 향해 열려 있고, 모든 개념을 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의 위대성이 있다.(「그해 겨울」, 179면)

이 인용문은 여러 면에서 ‘아름다움이 곧 진리이며 진리가 곧 아름다

움’이라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말, 그리고 ‘아름다움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라는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연상하게 한다.²⁵⁾ 아름다움이 모든 가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영혼의 생각은 심미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작가 이문열의 심미적 예술관을 대변²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미주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거니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고티에는 문학이 도덕적 가치들을 무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아름다움이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높아질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낭만주의자들의 유태주의적 태도, 예술지상주의적 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교양인 이영혼에게는 낭만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문학서클에서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영혼의 사고도 주의를 끈다. 그는 “진정한 시(詩)는 천재의 것이며, 진정한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79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대목은 김옥동의 지적과 함께 이영혼에게 낭만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영국 낭만주의의 초기 문헌의 하나인 영(Young)의 정의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영은 “독창적인 것은 <식물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천재의 생명에 찬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²⁷⁾라고 함으로써 낭만주의적 문학 이론의 단편을 제시한 바 있다.

벤야민은 예술가의 의미를 “자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낭만주의적 성찰의 궤적을 찾는 작업으로, 이때 성찰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행위의 권한, 내가 나일 수 있는 능력”²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젊은날의 초상』의 주인공 이영혼은 60년대 독서 열풍 속에서 지적 교양을 축적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는 예술 추구의 낭만

25) 김옥동, 「절망의 형이상학: 『젊은날의 초상』」, 『이문열』, 민음사, 1994, 174면.

26) 박종홍, 「이문열 소설의 권력, 애정, 예술」, 『현대소설연구』, 87면.

27)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종철 역, 「낭만주의 예술가」, 김용직·김치수·김종철 편, 『문예사조』, 1993, 77면 재인용.

28) 발터 벤야민, 박철호 편역, 「독일 낭만주의에서의 예술 비평의 개념」, 『베를린의 유년시절』, 숲, 1993, 148-149면.

적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는 작가 이문열의 지속적인 ‘개인’ 탐색의 결과라 하겠다.

② ‘절망’ 의식의 현현

『젊은날의 초상』에서 ‘절망’은 혼돈이나 고독, 피로와 같은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이다. 절망을 느끼는 인물은 주인공 영훈 뿐만이 아니다. 「하구」에서는 폐병을 앓고 있는 별장집 황씨 남매의 절망, 「우리 기쁜 젊은날」에서는 주인공 영훈을 비롯한 그의 대학 친구 하가와 김형, 「그해 겨울」에서는 ‘절망’의 미덕을 알려주는 먼 집안의 누님과 칼같이 등으로서, 이 작품은 절망감에 싸여 있는 인물들로 가득하다. 이는 젊은이로서 통과례처럼 겪어야 하는 ‘절망’의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극복의 과정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젊은이들이 겪는 절망의식은 60년대 교양주체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문열의 문학에서 낭만과 현실인식은 맞물려 있다²⁹⁾고 지적한 안남연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젊은날의 초상』을 압도하는 절망은 「우리 기쁜 젊은날」과 「그해 겨울」에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리 기쁜 젊은날」에는 <절망의 뿌리>라는 소재목이 등장할 정도로 ‘절망’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지니고 있다. 절망의 뿌리는 ‘가난’이라고 본다. 지식인, 교양인의 절망이 ‘가난’이라는 데서 다소 맥빠질 수도 있으나 작품에는 이념 상실에 대한 절망이라든가, 문학적 열정에 대한 절망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60년대 후반의 개혁에 대해서 영훈의 선배들이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영훈은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영훈이 문학 서클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오히려 동료들에게 선망이 되고 있어 그의 우월감을 조장한다. 영훈의 문학적 우월감은 그들을 조롱하는 행위로까지 나타나 결국 문학서클에서 퇴출당하고 만다. 일련의 이러한 대학 생활의

29) 안남연, 「이문열 소설의 이상주의적 경향과 현실인식의 관계」, 『현대소설 연구』 12, 2000.

우울함이 그에게 절망감의 뿌리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작품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끊임없이 발견되는 ‘피로’에 대한 호소이다. 영훈과 그의 친구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피로의 실체는 노교수에 의해 드러난다. 대학을 떠나기 전해 가을, 영훈은 극도의 피로 때문에 다음 강의시간을 찾아갈 것도 잊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던 노교수는 이런 분석을 한다.

그러자 한동안 나를 찬찬히 살피던 그분은 어딘가 측은함이 깃든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피로가 아니라 가난인 것 같군.”

나는 웬지 부끄럽고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그분이 다시 부드럽게 덧붙였다.

“가끔씩 유망한 학생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병이지. 이겨내야 해.”
(「우리 기쁜 젊은 날」, 66-67면)

영훈의 대학 생활은 독서가이자 문학 청년인 하가와 김형에 의해 술을 동반한 생활로 이어지지만 그 밑바닥은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자리 잡고 있다. 주인공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용케도 피하며 ‘피로’라는 말로 하지만 노교수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영훈이 싸구려 여인숙에서 만난 ‘번데기’ 소년 앞에서의 부끄러움이다.

불을 끄고 오래잖아 녀석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녀석과의 다시 만날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어떻게든 보상을 하리라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그 원인 모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우리 기쁜 젊은 날」, 146면)

(중략)

영원히 새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허망한 도회여, 허망한 삶이여, 배움이여. 그리고 그런 내 귓가에는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육신의 영락(零落) 보다 몇배나 더 처참한 영훈의 영락을 슬퍼하는 눈물이었다.(「우리 기쁜 젊은

날」, 149면)

영훈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하숙도 얻지 못한 채, 선배가 알선해 준 변역을 싸구려 여인숙에서 한다. 그때 하룻밤 동숙을 하게 된 소년에게서 그의 절망감은 극대화된다. 자신은 남루한 소년을 의심하여 소액의 돈을 영어사전 속에 감추었는데 소년은 그의 전 재산을 모두 보여주며 미래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다. 영훈은 소년의 외모만으로 그를 불신했던 자신의 속물근성을 부끄러워하며 정신적 영락을 깨닫는다. 이 사건은 그에게 그 어떤 결단을 요구하며 길 떠나기를 앞당기게 하였다.

절망감으로 학교를 떠난 영훈에게 절대미를 지녔던 누님과 우연한 조우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절대미에 대한 발견은 사실, 소년 시절에 이미 체험한 바 있다. 그것은 여행 길에 우연히 만난 먼 친척 누님의 아름다움이었다.

먼 집안 동생 되는 나를 그녀가 각별히 사랑했는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어쨌든 그날 내 손을 잡고 같이 걸던 그녀는 도중 길가의 코스모스 몇 송이와 들꽃으로 조그만 화환을 만들어 내게 내밀었다. 그런데 다정하게 웃으며 그걸 내미는 그녀가 왜 그리 섬찟했는지, 나는 필적 놀라 한발이나 물러섰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정신없이 달아나 버렸다.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내 어린 영훈을 섬찟하게 한 것은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그해 겨울」, 172-173면)

소년 영훈이 누나를 보고 ‘섬찟’한 느낌을 가졌던 누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바로 절대미에 대한 최초의 발견이자 그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일 것이다. 가까운 혈육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섬찟’함으로 각인된 것은 그것의 실체에 범접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느낌이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년시절의 영훈은 인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리고 청년시절에는 자연의 절대미 앞에서 경건해지며 그것을 숙명처럼 수용하는 변모를 보인다.

누님이 들려준 절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탐색 길에 방향이 되어준다.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그해 겨울」, 175면)”

누님은 방황과 방랑으로 ‘신산’한 모습을 지닌 영훈에게 자신의 절절한 과거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한때, 집안에서 재원으로 촉망받던 누님은 불행한 사랑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교육자의 길을 선택한 인물이다. 누나의 입을 빌어 드러나는 절망의 정의는 청년들의 열정적 삶과 상통하는 것이고, 낭만주의자들의 열정적 삶과도 맥이 닿는 말이다.

영훈은 누님의 말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 폭설이 내리는 창수령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훈은 창수령의 아름다움에 대한 희열과 감격에 뒤이어 곧 절망감을 느낀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어떤 신적이고 완전한 것, 따라서 왜소하고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절망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의 세계는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도전하여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가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아름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고 피흘린 정신 때문’(213면)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영훈은 예술의 완전성에 절망을 느끼는 것 못지않게 큰 위로와 새로운 도전의식을 지니게 한다.

나는 생각한다. 진실로 예술적인 영훈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저한 절망 위에 기초한다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아름다움을 창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고 피흘린 정신 때문이라고.(「그해 겨울」, 192면)

이런 절망감을 김옥동은 이문열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자 문학관인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이뿐만 아니라 낭만적 경향도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문열이 절망의 현현을 젊은이들에게 부여한 것은 청년의 특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망과 절망 극복의 의지 사이에서 커다란 싸움을 벌이며 청년들은 성

숙해지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또한, 청년은 절망과 절망 극복의 반복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발전의 시간’앞에 놓여진 인물이기도 하다.

칼같이 노인(엄밀히는 중년)의 절망 또한 영혼에게는 인상적이다. 오랜 시간의 투옥과 변절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온 칼같이의 절망은 중년의 절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칼같이 노인의 절망 극복, 먼 집안 누님의 절망 극복은 삶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영혼이 체험하는 이러한 길 위에서의 절망들의 양상은 낭만주의자들이 지닌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과 일부분 중첩되는 면모를 지닌다. 그러나 절망의 극복을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난 낭만성은 현실인식과 맞물리고 있다.

③ ‘젊음’에 대한 동경

프루스트의 『낭만주의』에는 낭만주의적 주인공의 형상화가 자전적이라는 대목이 있다. 낭만적 주인공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은 자서전적 요소들과 함께 고백적인 성격³⁰⁾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은 『젊은날의 초상』에도 유익한 대목이라 하겠다. 이 작품도 자서전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작가의 소설 후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자신의 젊은 날들이 이 작품에 스며 있다는 고백이 된다. 그로 인해 ‘내 가장 큰 애착은 항상 이 책 위에 머무를 것’³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런 후기를 고려하면 이 작품에 나타난 두 명의 이영혼을 주목할 수 있다.

『젊은날의 초상』에는 교양 소설적인 공간을 형성해주는 ‘발전의 시간’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회상의 1인칭 주체로 등장하는 ‘장년’의 영혼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청년 시절의 주인공 이영혼을 바라보는 장년 시절의 이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년의 이영혼은 청년의 이영혼을 그리움,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낭만주의의 정신적 기조는 ‘동경’이며, 낭만주의 문학을 ‘동경의 문학’이라 표현할 수 있다.³²⁾ 이 작품에서의 동경은 바로 ‘젊음’이다. 원래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동경은 먼 곳, 또는 미지의 곳에 대한 동경일 때가 대부분이다. 독일 낭만주의의 대가인 괴테가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을 끊임없이 발현하여 여행기를 남긴 것도 그러한 열정이 작용한 것이다.

동경은 과거를 지향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미래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현실로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을 증오한다. 이와 같은 동경 방향의 유동성은 기성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불확실한 세계로, 생성과정의 세계로 이동, 비약할 수 있는 원동력³³⁾이 된다.

젊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미 한 가정을 거느렸고, 매일 점잖은 복장과 성실한 표정으로 나가야 할 직장도 있”으며, “과장과 곡필로 이루어진 미문의 부끄러움도 알게”(155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년의 영혼은 성숙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 궤적을 서술하면서, 더러는 자신의 성급함을 반성하기도 하고, 그 무모함 속에 놓여 있던 열망과 절실함을 상기하며 지난 날을 미화하기도 한다.³⁴⁾ 성민엽은 이러한 화자의 성격을 분석하여 작가의 관념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작가의 스스로의 세계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념론적 세계관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³⁵⁾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장년의 화자가 젊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작품의 낭만성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교양소설의 양식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미숙했던 자신을 바라보는 성숙한 정신의 눈길은 관조적이면서도 형언키 어려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한때는 아픔이요 시련이었으되

32) 지명렬, 「낭만주의와 동경의 문제」, 김용직·김치수·김종철 편, 『문예사조』, 문학과지성사, 1993, 48면.

33) 지명렬, 앞의 책, 69면.

34) 서영채, 「소설의 열림, 이야기의 닫힘」,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189면.

35) 성민엽, 「젊음의 소설, 그 문화적 의미」, 김윤식 외, 『이문열』, 삼인행, 1991, 227면.

30) Lilian R. Furst, 이상욱 역, 앞의 책, 79-80면 참조함.

31) 이문열, 「작품 후기」,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323면.

이제는 다만 그리움일 뿐인, 아, 그 기쁜 우리 젊은 날”(154면) 이라든지 “아아, 지금도 떠오른다. 광란하던 그 바다, 어둡게 맞닿은 하늘, 외롭게 날리던 갈매기, 사위어 가던 그 구성진 울음. 그리고 문득, 초라하고 왜소하던 내 모습이여”(190면)와 같은 감탄문의 형식을 띠고 텍스트 전면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성숙한 성인이 된 장년의 영혼이 ‘젊은 날’의 영혼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회상하는 것은 바로 ‘젊음’이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다. 젊음이 비록 방황과 좌절의 흔적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젊음은 부단한 자기 확장과 이동, 기존의 것에 대한 끝없는 부정과 혁신, 발전과 성장에 대한 무한한 욕망 등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절대미가 낭만주의자들을 매료시켰다면, 인생의 과정에서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회상의 대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교양소설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일시성의 속성 때문에도 젊음을 주요한 특성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60년대 교양주체의 의미

지금까지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다시 읽기를 시도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난 교양주체와 낭만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두 가지에 집중하였다. 하나는 『젊은 날의 초상』을 ‘교양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와 주인공 청년의 교양은 어떤 의미를 띠는지 살펴본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젊은 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의 특성이 낭만적이라는 것, 그러한 낭만적 교양주체는 1960년대 독서대중화운동과 상당히 밀착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전개에는 독일 교양소설의 개념에 영향을 끼친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의 견해가 큰 도움을 주었다.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교양주체의 특성 규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성장소설’이라는 일반화된 장르명과 차별하여 ‘교양소설’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데에는 주인공 이영훈의 ‘젊

음’과 젊음에 수반되는 열정과 고뇌 때문이다. 딜타이와 모레티에 의하면, 교양소설은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젊음을 표현하는 소설장르이다. 이 장르의 소설은 부르주아와 귀족이라는 두 계급 사이의 전환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더니티의 등장 시기에 활동하는 ‘젊은 청년’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변형, 이동성과 불확실성,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등으로 특징지어진 인물이다.

『젊은날의 초상』의 주인공 ‘이영훈’은 서구유럽의 교양소설의 주체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성공한 장년의 소설가 위치에서 젊은날의 자신을 회상하고 있다. 회상의 대상인 젊은 영혼은 개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강렬하며, 지적·문학적 탐색과 방황, 예술 세계에 대한 강렬한 추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설정에 60년대 교양인의 형성과정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그에게 나타난 지식인·교양인의 형상화가 1960년대의 독서 운동과 밀착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는 교육 정책적으로 교양인 육성에 관심을 두었던 시기이다.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독서’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파급되면서 독서 열풍이 일어났다. ‘자유교양운동’이라는 교육정책은 교양주의·인문주의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추진하는 양상이 ‘국가(주의)’와 대중이 결부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독서운동은 60년대 중·후반에 중등교육을 받은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점은 이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책’에 대한 관심, 숭배, 지적 대화, 문학회 토론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주시해야 할 것은 사회적 현상의 영향에서 형성된 60년대 교양주체인 이영훈은 낭만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다. 그에게 나타난 낭만적 성향은 절대미 숭상, 절망의식의 현현, 그리고 젊음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개인의 자아 완성을 보여주는 성장서사의 교양 주체의 모습이다. 그런데 교양주체의 자기 결정과 사회적 통합의 조화를 교양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현실비판보다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1989.
 ——,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민음사, 1996.
 ——, 『시인』, 둥지, 1994.
 ——, 『들소』,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9.

2. 단행본 및 논문

강유정,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진리의 탐색과 알레고리」, 『배달말』 49, 2012.
 권유리아, 『이문열 소설과 이데올로기』, 국학자료원, 2009.
 김미옥, 「이문열 소설 연구-낭만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병익, 「成長小説의 文化的 意味」, 『세계의 문학』, 1981, 여름호.
 김윤식 외, 『이문열론』, 심인행, 1991.
 김용직·김치수·김종철 편, 『문예사조』, 문학과지성사, 1993.
 김옥동, 『이문열』, 민음사, 1994.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박종홍, 「이문열 소설의 권력, 애정, 예술」, 『현대소설연구』 6, 1997.
 복도훈,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안남연, 「이문열 소설의 이상주의적 경향과 현실인식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12, 2000.
 ——, 「현대소설에 나타난 ‘젊음’의 발현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9집, 2009.
 양선규, 「이문열 소설의 ‘시대착오성’의 문제」, 『개신어문연구』 제15집, 1998.
 오한진, 『독일 교양소설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9.
 윤금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2007.
 윤지관, 「발등의 상상력: 한국 교양소설의 계보」, 『문학동네』 2000년 여름호.
 이남호 편, 『이문열』, 웅진출판, 1994.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3.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2.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Franco Moretti,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H.G. Schenk, 이영석 옮김, 『유럽 낭만주의의 정신』, 대광문화사, 1991.
 후베르트 오를로프스키, 이덕형 옮김, 『독일 교양소설과 허위의식』, 형설출판사, 1996.
 Isaiah Berlin, 강유원·나현영 옮김, 『낭만주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 of Culture and
Romanticism of *The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by Lee Mun-Yeol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make an attempt to re-read *The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by Lee Mun-yeol as a bildungsroman and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its subject of culture and romanticism. The study placed a focus on two subjects: first, it examined the grounds for the novel as a bildungsroman and the meanings of culture of the protagonist young man; secondly, it noted that the subject of culture in the novel was romantic and that the romantic subject of culture wa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movement of reading in the 1960s.

The development of the present study benefited much from the opinions of Wilhelm Dilthey and Franco Moretti that had an influence on the concept of bildungsromans in Germany since they were influential in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of culture in the novel. The investigator named the novel "bildungsroman" in addition to "growth novel" under which category it was generally placed because of the "youth" of the main character Lee Yeong-hun and his passion and agony that accompanied his youth. Dilthey and Moretti defined bildungsromans as a genre of novels expressing youth as a symbolic form of modernity. Bildungsromans are in a traditional point between two classes, the bourgeoisie and the nobility. Being active at a time when modernity is born, "young people" are characterized by constant self-upgrading and transformation, mobility, uncertainty, and

desire for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the protagonist "Lee Yeong-hun" bears some resemblance to the subjects of bildungsromans in Western Europe. He has intense self-consciousness as an individual, undergoes intellectual and cultural inquiry and wandering, and shows a strong pursuit of the world of art. It is the most noteworthy that "poverty" that is daily fatigue seen in him is depicted in the embodiment of college students of the 1960s or intellectuals and cultured persons.

In the 1960s, people took increasingly more policy interest in "reading" as culture across the society. The liberal culture mov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exhibited the nature of culturalism and humanism and the patterns of "nation(nationalism)" and the public being combined with them along with the situations involved with "intellectual gaps and culture" in South Korea those days. Such reading movements seem to have exerted considerable impacts on the protagonist that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in the middle and late 1960s, which is found in many parts of the novel most showing interest, reverence, and worship for "books." A subject of culture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ose social phenomena in the 1960s, Lee Yeong-hun has a very strong romantic tendency, which is reproduced by his respect for absolute beauty, manifestation of desperate consciousness, and longing for young days. Those patterns demonstrate that a bildungsroman as a growth narrative showing the self-completion of an individual takes harmony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s an ideology of culture.

* key words : *The Portrait of the Days of Youth*, bildungsroman, culture, romanticism, youth, absolute beauty, desperate consciousness, longing.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9일에 투고되어 2014년 11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11월 27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